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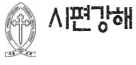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역경에 처한 백성의 과제

(시편 42:1-26)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역경이나 환난 중에 처한 성도가 해야 할 과제는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도우소서'라고 간구하며 '깨소서', '일어나소서'라고 촉구하지만 이 기도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만민으로 알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23절).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막 4:35-41).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주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의 정확한 배경이나 상황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군사적 실패를 경험했을 때일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시편을 애가, 찬송 시, 감사 시, 확신의 시, 기역의 시, 지혜의 시, 왕의 시, 메시아 시 등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본문은 애가에 속합니다. 시편 44편은 과거(1-8절), 현재(9-22절), 미래(23-25절)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과거 구원행위와 고통에 대한 현재의 관심, 그리고 오는 세상에 대한 도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 1. 하나님의 과거 구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1절).

이 시의 서두는 하나님의 과거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귀로 들어 알고 있었습다. 출애굽 사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칼이나 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습니다(3절).

우리 국가를 생각해 보면 1907년의 평양대부흥 운동, 8.15 광복, 1970년대의 교회 성장 운동도 역시 어떤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6절).

여기서 주어는 복수 1인칭(우리)이 아닌 단수 1인칭(내가, 나의)입니다. 하나님의 과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9절 이하에서는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도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2. 혼란에 빠진 현재

성경에는 그 때와 지금의 대조가 자주 나옵니다. 시편 44편은 슬픈 과거와 영광스러운 현재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과거와 비극적인 현재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지만 과거의 영광과는 대조적으로 오늘의 수모는 처참하지만 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폭발할 것 같은 심정으로 오늘 당면한 참상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9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과거 하나님의 보호와 오늘의 방치에서 풀기 어려운 모순을 발견하고 비판에 빠집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미운 물건처럼 버리고(9절), 쓸모없는 물건처럼 헐값에 팔아넘기며(12

절), 잡아 먹힐 양같이 열방에 흩어버리고(11절), 전쟁에서 쫓기고 약탈당하며 이웃으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열방으로부터는 능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13-16절). 어제와 오늘이 엄청나게 다른 하나님의 행사에서 시인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시인은 또 다른 갈등으로 괴로워합니다. 당시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반대 현상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17절).

행함과 보상의 부조화에서 시인은 더욱 고뇌에 빠집니다. 시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주를 잊거나 주와 맺은 언약을 어긴 적이 없고(17절), 변심하여 주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며(18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사망의 땅에 이스라엘을 팽개쳐 버리신 것에 같듯합니다. 우리는 쉽게 권선징악의 단순 논리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오히려 모순 논리에 의해 거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 어렵게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조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성공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 직면했고,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 3. 미래 구원을 위한 기도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26절).

역경이나 환난 중에 처한 성도가 해야 할 과제는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소서' (23절), '잊지 마소서' (24절), '도우소서' (26절)라고 간구하며 '깨소서' (23절), '일어나소서' (23절)라고 촉구하지만 이 기도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정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늘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26절) 구원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구원해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소서”라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는 개인의 경험을 서술한 시가 아니고 국가적 사건을 다룬 국민의 시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 결혼예비학교 / 세계선교대학 / 교사양성반 / 교구일꾼 양성반 / 찬양대양성반

겨울의 긴 움츠림을 깨고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2007년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들을 개강 한다.

올해는 단기전도학교가 3월 말까지 계속 열리는 관계로 먼저 3월 4일부터 결혼예비학교를 시작으로 제5기 세계선교대학, 교사양성반, 교구일꾼양성반, 찬양대양성반 등 5 강좌가 개강되고 나머지 열린 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마리아 학교(새 세대 부모학교) 등 4강좌는 4월 9일에 개강한다.

세계선교대학은 3월 5일(월)부터 10주간 세계선교를 위해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외부 강사들이 강의한다. 이번 여름, 이스라엘로 파송되는 단기선교에 참여할 성도들은 필히 세계선교대학을 이수하여야 한다.

결혼 예비학교는 5주 과정으로 결혼을 앞둔 모든 커플들, 수강을 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을 원하는 청년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교회에서 결혼예식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교사양성반은 서울교회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양성반을 이수한 성도들에게 교사자격이 주어진다. 교구일꾼 양성반 역시 각 교구에서 일꾼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필수과정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찬양대 양성반은 7주 과정으로, 박정선 장로(단국대 음대 교수)의 지도로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기초를 배운다.

이렇게 3월 4일(주일)부터 개강하는 프로그램들의 등록비는 과정별로 10,000원씩이다.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기도한다.

강좌별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5기 세계선교대학>

<2007년도 전반기 교사양성반>

날짜	과목	강사
3/5	세계선교의 흐름과 한국교회	이광순 교수(장신대)
3/12	종교 갈등과 선교	변창욱 선교사(필리핀 선교사, Ph.D)
3/19	기독교와 이슬람/힌두교	김동찬 선교사(인도네시아 선교사)
3/26	북한 선교의 이해	박요셉 목사(한기총 선교국장)
4/2	기독교와 민속종교	김영동 교수(장신대)
4/9	21세기 선교전략	문상철 교수(합신대, 한국선교연구원장)
4/16	선교행정과 후원	총회장사
4/23	선교를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	조재호 목사(고척교회)
4/30	선교와 순교자	박명관 선교사(브라질 선교사)
5/7	종교다원주의 사상 비판	김영한 박사(숭실대)

날짜	과목	강사
3/11	교회교육의 목표	이태훈 목사
3/18	구약 개설	정수길 목사
3/25	신약 개설	이태훈 목사
4/1	교사의 자질	한상은 목사
4/8	반목회	윤영국 목사
4/15	성경적 교회론	정수길 목사
4/22	학생의 이해(발달심리)	한상은 목사
4/29	학습지도	이태훈 목사
5/6	교사와 학생(심방, 지도, 상담)	지혜영 전도사
5/13	예배의 자세	윤영국 목사

<제8기 결혼예비학교>

<2007년도 전반기 교구일꾼 양성반>

날짜	과목	강사
3/11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3/18	그룹기도 인도	이태훈 목사
3/25	다락방 전도대	윤영국 목사
4/1	성령의 은사체코	정수길 목사
4/8	다락방 모임시 집단상담	이태훈 목사
4/15	다락방 성경공부 인도법	한상은 목사
4/22	다락방장의 리더십	정수길 목사
4/29	다락방과 교회봉사	윤영국 목사
5/6	이단연구	한상은 목사
5/13	다락방 행정	지혜영 전도사

날짜	과목	강사
3/4	성경적 결혼관	이규정 목사
3/11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	주원순 선생
3/18	신혼의 행복한 성행	이운진 권사
3/25	결혼과 재정관리	김금준 집사
4/1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박금실 전도사

<찬양대양성반> 강사: 박정선 장로

날짜	과목	날짜	과목
3/11	찬양과 예배/경건의 찬양	4/8	호흡과 발성법/계명창법
3/18	호흡과 발성법/음표와 심표	4/15	호흡과 발성법/지휘보는 법/찬양대 역사
3/25	호흡과 발성법/리듬과 박자	4/22	호흡과 발성법/각 찬양대 소개
4/1	호흡과 발성법/계명창법		

# 2007년 스테반회 수련회

### -3월1일(목) 진위고등학교-

스테반회는 “하나님께 인정 받는 일꾼”이라는 주제로 오는 3월1일(목) 평택 진위고등학교에서 부부수련회를 갖는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종윤목사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집사로 안수 받은 1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스테반회는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의 복음에 대한 순교 믿음을 본받아 우리교회 설립초기부터 조직되었으며 회원들은 대부분 교회 각 부서의 부장, 부감 등 중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예배당 청소, 차량관리부, 식당 봉사 및 천국환송예배 시 운구를 담당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바쁜 봉사일정으로 갖지 못했던 회원간의 교제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심신을 재충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2회 호산나 학교 입학감사예배

### -3월2일(금) 오후2시 웨스트민스터 홀-

우리교회가 이 땅의 장애우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재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한 호산나 복지재단 산하 호산나 학교가 2008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입학감사예배를 드린다.

호산나 학교 입학감사예배는 3월2일(금)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리며 이날 이종윤 목사(호산나 복지재단 이사장)는 입학식에 참석하는 호산나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기능을 찾는 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

이번에 입학하는 호산나 학교 학생은 10명이다. 속히 호산나 학교 부지가 선정되어 호산나 학교가 건립되어 장애우들이 마음껏 뛰며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에바다부 겨울수련회

### 2월28일(수)-3월1일(목) 가평 대성리 늘푸른캠프

에바다부 수련회가 “빛의 사자들”이라는 주제로 2월28일(수)부터 3월1일(목)까지 이틀간 가평 대성리 늘푸른캠프에서 열린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위로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복음적 신앙 일꾼이 되어 농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에바다부가 되기를 기도한다.

# 공사 제55기 졸업 및 임관 감사예배

### -2월27일(화) 오후 6시30분 청주 공사교회에서-

공사 제55기 졸업 및 임관 감사예배가 우리교회 주관으로 2월27일(화) 오후 6시30분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에서 거행된다.

이날 우리교회는 이종윤 목사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졸업생들을 위한 선물과 갓 입학한 메추리 생도들을 위한 간식을 제공한다.

또한 공군기독교인회와 한국 기독교인회, OCU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졸업생들의 장도를 축하한다. 성무교회에 의하면 졸업 및 임관감사예배에는 졸업을 하는 기독학생 100여명, 재학생 포함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교회가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는데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되도록 기도한다.

당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한다.

# 대한민국 지키기 · 친북, 반미 좌파 종식을 위한 3·1 구국 기도회

3월 1일(목) 오후 2시 -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려

3·1절 88주년을 맞는 이 때 한반도 절반은 아직도 압박과 설움의 노예 상태로 남아있고, 나라는 친북 반미 좌파세력이 활보하고 있다.

이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구국기도회와 국민대회가 오는 3월 1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시청광장에서 열린다.

모든 애국세력이 한 깃발아래 모여 대한민국 지키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민의 염원을 함께 묶는 국민대회가 될 것이다.

대회 주최 측이 발표한 취지문에 의하면 3.1정신과 건국이념 그리고 헌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국민과 정치세력에 간절히 호소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 국가이다.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의 '평화적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무기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대북 지원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남 공산화 전략을 저지해야 한다.

출세와 장수와 건강과 부자 되는 복을 기도했던 내가 철이 들어서 오늘밤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 쌓은 재물이 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내가 우선이고 나 밖에 모르고 나를 아끼고 위해주는 것에 재미 붙이며 살았던 나에게 믿음이 익어가면서 이웃이 보이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가 크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래 믿었다는 자랑과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안다고 으시대면서 성경 지식에 치우친 가르침과 교훈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나에게,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고려연방제' 안을 수용한 반헌법적 6·15 선언은 폐기되어야 하며, 국헌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존속해야 한다.



**넷째,**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한미동맹은 일층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 김정일 집단의 반인륜적 인권탄압행위, 즉 강제수용소, 공개처형, 국군포로 및 납북자 억류, 신앙자유 박탈은 무조건 중지되어야 하고, 중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인 탈북자 강제송환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개악 사립 학교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선음모용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 정권의 대선 개입을 반대하고 저지하자.

이 행사를 위해 우리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는 공동대회장을 맡고 김상철 장로는 집행위원장을 맡아 애국 세력의 대동단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

## 우리 모두 3.1정신과 건국이념, 헌법의 원칙을 지켜야

시순절을 기다리며

## 영광의 부활을 그리며

윤봉준 장로(9교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떨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생명 되신 주님을 잊고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행위로는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혹시 지금 내 속에는 없는지……

시순절을 기다리는 이 때,  
특별히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승리의 부활 아침,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높이며 섬기며  
증거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살얼음 판을 걸듯이 경건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로울 때 가난하고 병들 때 남이 알아주지 못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다고 믿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인간적인 소유를 늘리려고 발버둥치는 노력 대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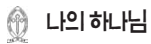
나의 하나님

## 한 말씀만 하옵소서!

김광신 장로(12교구)

새기며 먼저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치유하며 살롬의 가정을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장담하다가 사탄의 유혹과 울무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진 조상의 과거를 되새기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



#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



박상훈 성도 (청년부)

열었던 땅에 생명의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있으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 낙심하여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시험에 한 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 대학시험에 떨어졌다고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대학에 떨어졌을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수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꿈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이듬해 저는 4년 전액 장학생으

로 대학에 입학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도 여러 번 실패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됩시다. 요셉처럼 늘 꿈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소망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 제 23기 단기전도학교 수료자 명단

고아라 고정례곽선자 권소희 김길자 김영란 김영호 김은비 김인실 김종철 김혜경 김혜아 김희순 남태순 박길자 박우옥 박원옥 박정희 박종환 백승갑 백옥금 서춘식 여현진 오선숙 오은이 오주명 우령찬 우지원 유경희 유승순 이경혜 이규희 이금순 이연구 이옥심 이우리 이준희 임영숙 정기자 정애신 정영택 정은자 정종순 정천수 조영주 주성숙 최금봉 최명남 최정인 최태경 최형열 하인선 한경삼 홍광숙 홍명숙 홍성숙 홍성주 홍승자 총 58명

## 찬양예배 특별 순서

오늘 찬양예배는 '아멘 관현악단' 이 특별순서를 맡아 켈로 4중주(박성수 한동현 이이레 이에림)로 나의 믿음이 약할 때(R. Harkness 곡)를, 전승현 선생(김스양상블 단원)이 Baritone 독창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외 1곡을, 임범창 집사가 Clarinet 독주로 Beneath the cross of Jesus(Frederick C. Maker 곡) 외 1곡을 연주한다.

## 2006년 순례자 · 주보 합본 발행

-서점에서 판매 중-

2006년 한 해 동안 발간되었던 순례자와 주보를 모아 제작하여 보존판으로 발간되었다. 가격은 순례자-6000원, 주보-4,000원으로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기독교 고전 산책 1 - 존 번연 <천로역정>

# 천로역정

근대 기독교 소설의 원조로 불리는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의 원래 제목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이르는 순례자의 나그네길"이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번연(J. Bunyan)은 청교도 박해로 투옥되어 있던 중 그의 대표작인 이 작품을 집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그의 죄목은 평신도이면서 회중에게 중세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개혁하고자 하는 성결에 대하여 설교했다는 것이었는데, <천로역정>은 이 금지당한 설교를 글로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지시해주는 전도자,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독실한 믿음의 동료 페이스풀과 소망의 동행자 호프풀, 목자들,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거인들과 교만한 자, 나태한 자, 절망하는 자, 무지한 자 등을 만나게 된다. 회심과 성화, 영적 각성과 투쟁,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풍부한 성경 구절의 인용으로 짜임새 있게 엮어놓은 <천로역정>은 오늘날 "영적 체험에 대한 백과사전"이라 불리며 크리스천들의 필독서로 꼽힌다. <천로역정>은 아직 구원의 도를 깨우치지 못한 이들에게도 유익하고 친절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의 서두는 저자의 꿈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행 16:30-31)하는 탄식과 함께 시련과 모험으로 가득한 역경의 여정에 오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등에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오직 성경 한 권만을 손에 든 채로 길을 떠난 주인공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어려움의 산과 낙담의 수렁, 겸손의 골짜기와 죽음의 음침한 계곡, 허영의 거리와 의심의 성을 지나고 마침내 천국 문, 빛의 도성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속의 저편 빛이 비치는 좁은 문

편집부

## 이스라엘 단기선교 참가자 모집

올해 7월 30일(월)부터 8월 11일(토)까지 이스라엘로 파송될 단기선교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이스라엘 단기선교는 대학부를 중심으로 파송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서울교회 성도는 3월 4일(주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7일(화) 공군사관학교 졸업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한다. 28일(수)기독교 학술원 이사회에 참여하고, 3월1일(목) 대한민국 지키기 국민대회 구국기도회를 인도한다.
- 발행 : 박성준 권사(12교구) 경기도 신갈초등학교
- 전시회 : 최문주 집사(3교구, 초등부교사) 섬유공예전시회(2/22-28) 서초갤러리 T. 588-2987
- 주간식당 봉사 : 스테반회(2, 25) 권사회(3, 4)
- 금주의 식사 : 최난수 권사(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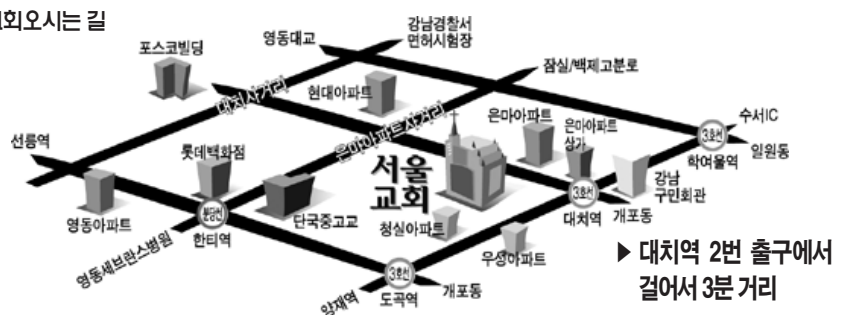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3.1절 구국기도회를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